그립다는 것은　아직도　네가　내안에　남아　있다는　뜻이다

그립다는　것은　지금은　너를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내　안　어느　곳에

네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그립다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너를

샅샅이　찾아내겠다는　뜻이다．

그립다는　것은　그래서　가슴을　후벼파는　일이다

가슴을　도려내는　일이다．

**그립다는 것은　－　이정하**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1]](https://namu.wiki/w/%EB%8B%98%EC%9D%98%20%EC%B9%A8%EB%AC%B5#fn-1)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2]](https://namu.wiki/w/%EB%8B%98%EC%9D%98%20%EC%B9%A8%EB%AC%B5#fn-2)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침묵 – 한용운**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잊힐 날 있으리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못 잊어도 더러는 잊히오리다.

그러나 또 한긋 이렇지요,

'그리워 살뜰히 못 잊는데.

어쩌면 생각이 떠지나요?"